

본당 소식

♣ 2025년 재유럽 사목자 회의 안내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 - 23일, 밀라노

♣ 성모의 밤 및 미사

- 5월 21일 (수) : 19:00, 오라토리오

♣ 성가대 정기 연주회 < Giubileo _ L'Amore e La Gioia >

- 5월 24일 (토) : 17:30 , 오라토리오

- 많은 홍보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모임/회의

- 사목 회의 : 5월 11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1구역 모임 : 5월 12일 (월) 9:30, 데자뷰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07.60€ • 교무금 52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 성가

입당 : 55 (착하신 목자)

봉헌 : 221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파견 : 132 (감사의 송가를)

전례 봉사

이번 주일(5월 11일)	다음 주일(5월 18일)
1독서: 윤다혜 아멜리아	1독서: 김유진 안젤라
2독서: 남궁형 미카엘	2독서: 이치훈 베드로
복 사: 변가인 헬레나, 문수빈 미카엘라	복 사: 김사빈 엠마, 정이한 다윗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5월 11일 (백)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화답송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목장의 양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1독서 (사도행전 13,14.43-52)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14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43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44 그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45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46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
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47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48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49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50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51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7,9.14L-17)

나 요한이 9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손에
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여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14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15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여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여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
에게 내리찍지 않을 것이다.
17 여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
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
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성소 주일을 맞은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고자 준비하는 모든 이가 믿음과 열정을 간직하며, 각자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여러 종교와 문화 속에 얽혀 있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서로 갈등하
며 맞서지 않고, 소통과 화합으로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3.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스승으로 불리는 이들을 이끌
어 주시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4.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일치와 사
랑, 평화를 위한 사도직을 시작하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 떼를 인자로이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레오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맡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